

학습 전략

시험 잘 보는 방법

이번 **트침파 배움**(제12호)에서는 '학습 전략'코너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시험 잘보는 방법」을 기재한다. 아래는 이준구 교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학습 전략 시험 잘 보는 방법 문제의 핵심 파악하기

이준구*

즐겁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시험의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곧 고시니 취업시험이나 하는 시험의 난관을 뚫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나는 이번 재정학 기말고사 채점을 하다가 답안지를 보면 무척 놀랐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았는데, 답안들이 하나같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답안이 써어졌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래서 짧게나마 학생들에게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학생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물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관식 시험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채점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아무리 현

학습 전략

시험 잘 보는 방법

란한 문체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담아내고 과시한다 해도 핵심을 비켜나가면 어느 시험이든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의 내 경험에 따르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식을 과시하는 데 주력하면 형편없는 답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은 바로 그 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느 말이다.

나는 학생들이 이러한 혁명하지 못한 응시 태도를 갖게 된 것은 단순 암기식 교육을 받아온 결과이자 그 폐해인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보기엔 학생들의 전형적인 학습 방식은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단순히 암기할 뿐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무엇을 묻든 자신이 암기한 것을 애무새처럼 써 넣을 수 밖에 없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생각이란 것을 해보지도 않고 그저 암기에만 골몰하는 나쁜 학습 방식이 우리 학생들을 망치고 있다.

재정학 기말시험에서 예를 하나 들어 학생들이 얼마나 맹목적인 학습 방식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시험문제는 “조세의 자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누구에게 귀착될 것인지를 예측해보라”였다. 조세의 자본화라는 것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내구성 자산에 조세를 부과하면 그것이 가격이 떨어져 결국 현재의 자산 보유자에게 그 부담이 전적으로 귀착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시험문제는 조세의 자본화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것이 분명 아니다. 현실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자본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해보라는 것이 시험문제이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조세의 자본화 그 자체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쳤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본 자본화의 도출 과정을 설명하고 이 자본화 때문에 현재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전적으로 귀착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라면 조세의 자본화라는 개념 그 자체에 관해서는 간략한 소개로 그쳐야 좋은 답안을 만들 수 있다. 조세의 자본화라는 것은 모두 이상적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예측

학습 전략

시험 잘 보는 방법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결과일 뿐 현실에서 자본화가 실제로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다. 출제자가 묻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과연 종합부동산세의 자본화가 일어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응시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이다. 만약 현재 이 자본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설득력 있는 해설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이것은 교과서에서 설명되지 않았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어떤 시험이든 응시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논점을 벗어나 일반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답안에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채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찾아오라고 했더니 정말로 구름같이 많은 학생들이 내 연구실로 찾아왔다. 대부분의 학생이 자기가 왜 감점을 당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논점을 벗어난 답안을 썼으면 스스로 그것이 오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다.

앞서 내가 말한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귀착된다. ‘어떤 시험문제가 나오면 그 시험문제의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라’는 것이다. 단언컨대 이 것 말고 다른 더 중요한 요령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좋은 답을 쓰기 위해서는 암기한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상상력을 동원해 이를 현실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는 듯한 답안은 채점자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논의의 핵심과 별 관련이 없는데도 아는 것을 모두 쏟아내려는 태도로 이것저것 중언부언한 답안은 오히려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깨끗한 글씨를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석봉 같은 명필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비록 예쁘지 않은 서툰 필체라 하더라도 반듯하고 깨끗하게 쓰면 된다. 최소한 채

학습 전략

시험 잘 보는 방법

점자가 답안을 읽으면서 짜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는 연습을 해두어야 한다.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고언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51